

Daniel J. Treier 박사 , 잠언 , 세션 3

잠언 10-29장, 악덕

© 2024 다니엘 트라이어(Daniel Trei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강의에서 Daniel J. Terier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세션, 잠언 10-29장, 자본 악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잠언 읽기에 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잠언 10-29장을 일곱 가지 주요 악덕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덕과 악덕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은 잠언 에 수집된 도덕적 지혜를 종합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잠언은 기억에 남고 때로는 여러 잠언이 주제별 클러스터에 함께 배치되는 반면, 이러한 잠언의 적용은 우리가 특별히, 때로는 거의 고립된 맥락에서 접할 때 매우 산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특화되는 것은 그들의 천재성의 일부이지만, 이 천재성은 그들의 더 큰 규모의 일관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의 맥락에서 언약의 신실함과 공동체 번영의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들은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상적으로, 기본적이고 신학적 미덕의 전통은 잠언의 긍정적인 도덕적 비전을 전달하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은 이기적인 어리석음, 하나님께 대한 충성 대신 우상 숭배, 사랑 대신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덕의 반대인 악덕은 법정에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중대한 악덕을 일곱 가지 대죄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 다큐멘터리, 심지어 책에서도 이 패러다임을 탐구하고 때로는 죄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와 연관시키는 죄에 대한 전형적인 초점은 이미 이 패러다임이 다루고자 하는 것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요 악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꽃이나 나무의 뿌리처럼 다른 죄가 생겨나는 죄성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한 악덕은 행동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락을 위해 마음을 너무 밀접하게 다룹니다.

이로써 그들은 율법주의나 절망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수반하는 자기 지식, 궁극적으로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을 위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이교도들은 적어도 일부 악덕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지만 무질서한 욕망이 악덕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욕망이 치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을 정복하려는 모든 시도는 기본적으로 타이타닉호의 갑판 의자 주위로 옮겨갈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정욕이나 폭식 등을 정복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노예화를 강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개인의 삶의 수준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적어도 특정 악덕을 극복하는 부분적인 자제력과 특정 미덕의 부분적인 실현을 깨닫게 하는 데에는 사회적 인센티브와 가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덕에 대한 다양한 기독교 목록이 있습니다.

숫자가 항상 7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성과 경제성을 위해 여기서는 일곱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이 목록에 상당히 흔히 나오는 헛된 영광을 교만이라는 제목 아래에 두겠습니다. 교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악덕의 기본 뿌리로 간주됩니다.

다른 모든 것 사이에는 질서 있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정확한 순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그 뿌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는 Dante의 순서와 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지옥의 원과 연옥의 산 테라스는 각각의 악덕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반면, 순결을 향한 상승은 교만에 맞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전반적인 순서는 참된 자선의 반대를 점점 더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만과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정욕이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정욕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테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자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선에서 가장 쉽게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정욕에서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다양한 사랑과 다양한 욕망에 비추어 자유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덕은 참된 지혜와 참된 의가 발견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순되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단테에게는 세 가지 악덕, 즉 분노, 시기, 자만심이 뚜렷이 자기애를 통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나태는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사랑을 반영하는 악덕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는 온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악, 정욕, 폭식, 탐욕은 하나님에 비해 피조물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사랑, 즉 하나님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시작하고, 그런 다음 우리가 자기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되는 일종의 교육학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덕의 내용과 순서 모두에서 기독교 전통에 따른 이러한 목록의 유연성은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 사이에 수많은 상호 관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현재 목록은 대죄로 시작하는데, 현대 서구 문화에서 가장 조롱거리가 되는 죄인 정욕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기껏해야 신체를 부정하는 신중함의 원천, 최악의 경우 억압의 원천으로 취급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 윤리와 관련하여 고전적인 기독교 사상가들 사이에는 건전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신체를 경멸하기는커녕 실제로 많은 동시대 사람들보다 신체가 인간에게 미치는 완전한 영향을 더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

레베카 드 영(Rebecca de Young)이 말했듯이, 물리적인 재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은 다시 말하면 교만이라는 뿌리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정욕에 대한 잠언의 많은 반대는 이미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 구절들이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영적인 간음도 묘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후자인 영적 간음은 언약을 깨는 자기애의 역동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9장 이후에도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2:14에서 방탕한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입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은 거기에 빠진다. 이 잠언 중 일부에서는 음녀가 어리석음과 영적인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데 정욕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쾌락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에 따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궁핍을 겪을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자가 되지 못하리라, 21:17. 자신의 욕망에 지배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악을 행할 방법을 궁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21:25, 26, 24:8, 9).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무절제한 욕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으로 그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로 그치느니라 11:23
그러므로 정욕에 대한 승리는 욕망 없는 피조물이 되는 것, 즉 불가능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승리는 우리 욕망의 대상, 성격, 범위를 재정렬하여 의가 악하고 이기적인 계획을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건강한 결혼 생활은 잠언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재정렬된 욕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좋은 의도의 금욕 캠페인이 정욕 문제를 해결하는 부부 성관계에 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진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치유의 일부입니다. 더욱이, 잠언이 순결, 좋은 이름, 적절한 자원, 안전, 분쟁보다는 사회적 조화 등을 호소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는 살롬의 다른 요소들도 여러 다른 악덕이 보여주듯이 무질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롬 추구가 결국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악덕도 미덕과 마찬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들은 특히 식탁의 즐거움이 육체의 즐거움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질투, 분노, 폭력,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는 영적인 나태에 이르기까지 몇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배를 통해서라고 Kleinberg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폭식과 정욕, 쾌락에 대한 사랑, 특히 성적인 쾌락에 대한 사랑과 음식과 음료에 대한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폭식은 너무 많이 먹거나 즐기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Rebecca de Young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오류를 요약하기 위해 FRESH라는 약어를 제안합니다. 까다롭게, 게걸스럽게, 과도하게, 호화롭게, 급하게 먹습니다. 즉, 폭식은 음식에 대한 자기 집착을 구체화하고, 음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폭식은 폭식, 위안을 주는 음식, 패스트푸드, 단 것을 좋아하는 것 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금욕주의나 체중 조절에 대한 집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악인을 음식에 대한 갈망과 연관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원은 금하시느니라, 10:3. 20장 1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일하는 의인을 공급하신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가난해질 것이다. 눈을 뜨면 빵이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배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만족은 다른 곳에서 발견됩니다. 18:20 입의 열매로 배를 채우느니라. 입술의 양보가 만족을 가져온다.

즉, 입에 관한 이 흥미로운 평행법은 예를 들어 적시에 말하는 경우,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나타나는 의와 지혜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음식에서 더 세속적인 만족을 누리려면 실제로 절도가 필요합니다. ,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습니다. 네가 꿀을 얻었거든 먹을 만큼만 먹고, 너무 많이 먹어도 토할 것이다(25:16).

꿀을 많이 먹는 것과 명예 위에 영광을 구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25:27. 배부른 식욕에는 꿀도 싫어하고, 배고픈 식욕에게는 쓴 것도 달게 된다(27:7).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티나 저녁 식탁에서 여분의 음식을 챙기고, 특정 시점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 대신에 음식을 소유하고 싶어한다는 기괴한 인식을 인정해야 합니까? 잠언은 술과 관련된 어리석음에 대해 더욱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한 술이며 독주요 떠드는 자니 이로 말미암아 미혹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느니라 20절 1절.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궁핍하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21:17. 너는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중에 있지 말라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졸음은 그들을 누더기 옷으로 덮을 것임이라(23:20, 21). 탐식은 쉽게 나태와 같은 다른 악덕을 조장한다. 잠언 23장에서는 포도주의 위험성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폭식에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녀라도 탐식하는 자들의 동무들은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28:7. 이제 평판에 대한 집착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오지만, 이러한 위험은 시기와 허영과 교만과 관련하여 곧 표면화됩니다. 잠언에는 우리의 자제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건전한 형태의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친 세심함과 화인 맞은 양심에 맞서 음식과 음료에 관한 잠언의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일치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자제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어느 정도 자기 인식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욕이나 폭식과 마찬가지로 탐욕이나 탐욕도 기형적인 욕망을 다룹니다. 드 영(De Young)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탐욕의 대상을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즉 유용하거나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정욕과 폭식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는 한 사물에 대한 욕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처음에는 탐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쾌락과 관련시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형태의 자기 몰입, 탐욕은 구매하는 것을 돈으로 대체합니다.

돈은 단지 다른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는 노동보다는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며, 돈으로 우정이나 사랑 같은 진정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Schiml의 말 에 따르면 그러한 비극의 정도는 탐욕을 일종의 영적 수종으로 만듭니다 .

몸에 이미 체액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이 특징입니다. 육체적, 영적 수종도 비슷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증은 더욱 자극됩니다.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적인 수종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적 이해에서 미덕은 양 극단의 악덕 사이에 위치합니다. 탐욕이 반대하는 미덕은 자유로움, 즉 타인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자유롭게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탐욕의 반대인 방탕, 즉 돈을 낭비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교묘하게 돈을 사용하는 관대함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돈을 낭비하는 것, 낭비는 심지어 탐욕스러운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로 이어지는 돈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낭비는 여전히 돈의 유용성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지출 습관이 신중해 보이는 인색한 사람도 어쩌면 탐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하는 기형적인 욕망 때문에 돈을 축적할 수도 있고, 돈 자체로 자신의 삶을 측정하기 위해 돈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딤후 6:10) . John Cassian은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을 탐욕의 비유로 취급합니다. 그로부터 배우는 그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인간성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얻기 위해 나봇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대사로 마무리됩니다.

아합과 같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권유를 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몸을 팔아 행한 자가 없었느니라. 그것은 열왕기상 21장에 있습니다. 다른 악덕과 마찬가지로 교만은 탐욕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탐욕스럽습니다. 돈 자체를 일종의 자기 측정 수단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존심은 넘어지기 전에 먼저 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에 관한 몇 가지 관련 원칙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내용은 프로파일링해야 합니다. 첫째,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실제로 수익성이 없습니다.

잠언은 다양한 방법으로 탐욕에 맞서고 있습니다. 급하게 모은 재물은 줄어들고, 조금씩 모으는 자는 늘어나리라, 13:11.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안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15:27 등등.

잠언에 따르면, 부를 즐기는 것은 범죄 행위를 피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면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면서 부를 올바르게 획득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부의 획득은 두 번째로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부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와 복은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10:22. 그러나 인적 요인도 관련이 있으며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심한 자는 궁핍하게 되고, 공격적인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11:16.

어리석은 자들이 배울 마음이 없는데 왜 지혜를 사기 위해 값을 치르고 있어야 합니까, 17:16? 더욱이, 부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척하면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체하면서도 큰 부를 누리느니라, 13:7.

그래서 부의 획득은 복잡합니다. 부는 그것을 너무 짝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부자의 부가 그들의 요새이다.

가난한 자의 가난은 그들의 파멸이니라, 10:15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기능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아이러니를 암시하는 구절은 18:11과 같습니다.

부자의 부는 그들의 견고한 성이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것은 높은 벽과 같다. 그러나 우리의 부는 실제로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 생각에 디모데전서 6장은 잠언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그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재물이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나니(17절)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부자에 관하여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관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의 보물을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삶을 붙잡으십시오. 진정한 생명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과 종종 하나님의 현세적인 공급을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이익을 원한다면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1:4. 작은 것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보물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로 먹는 것이 살진 소와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15:16, 17).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보다 나은' 말에 대한 다른 예를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신성한 은사로서 감사하게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자원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부는 죄 많은 인간에게 우상 숭배와 억압적인 위험을 안겨줍니다. 잠언 30장, 8장, 9절을 간략히 살펴보면, 나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며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지 아니하면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하리로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리로다.

이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잠언에서는

나태의 악덕을 다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신의 공급은 대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중재되며, 게으름은 가난의 이면에 결정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결코 배타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10:4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된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습니다. 12:7, 그리고 나는 수많은 다른 구절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따르면 게으름은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게으름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10:5 여름에 거두는 아이는 슬기로워도 추수 때에 자는 아이는 수치를 당한다. 10:26 게으른 자는 이에 식초가 되고 눈에 연기가 되는 것과 같으니 게으른 자는 자기 고용주에게 그러하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른 사람들은 주변의 사회적 느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자존심의 희생양이 됩니다. 20 :6, 16, 게으른 자는 슬기롭게 대답하는 일곱보다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나태에 대한 대결은 게으름을 비난하는 것 이상이며, 잠언은 모든 가난을 게으름과 단순히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3:23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밭은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지만 불의로 인해 쓸려갑니다. 더욱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나태를 게으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나태의 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카디아(acadia)는 돌봄의 부족,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목적 없는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에 더 가깝지만, 또한 슬픔과 슬픔을 의미하는 트리스티티아(tristitia)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나태는 구원의 가능성,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있게 행동하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게 됩니다. 물론 잠언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의 기본적 차원에서 자연적, 세속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와 관련하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즉, 지혜를 키우는 일을 포함하여 경건한 징계를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종종 나태를 무질서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욕망과 연관시키며, 이러한 연관성은 나태에 대한 더 넓은 기독교 신학적 접근 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일중독을 찬양하는 잠언의 가르침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헛된 추구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희망찬 행동을 향한 더 깊은 부르심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전 악덕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요 악덕인 분노, 절제에 대한 죄입니다. 열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태처럼 열정에 집착하는 것, 정욕이나 폭식처럼 적절한 대상을 부적절하게 추구하는 것, 돈 자체가 목적이 될 때 탐욕처럼 부적절한 대상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분노는 불의를 인지함으로써 활성화되는 정의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종종 불의는 충분히 현실적이지만 진노에는 불균형한 반응이 수반됩니다. 이제 진정한 불의의 경우 어떤 분노가 악인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장, 27장은 일종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노도 한 순간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한 교부들은 표현력을 중시하는 현대인과 우리의 위험한 반응을 달래려는 경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실제적인 수준에서는 적절한 분노의 시기와 방법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 영의 말에 따르면, 성경 용어집을 빠르게 훑어보면 십여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 대부분은 분노에 관해 조언하는 잠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중 어느 것도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정당한 표현에 대한 구절은 조언에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잠언의 검토를 시작하려면 먼저, 종종 진노에서 비롯되는 폭력을 다루는 구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부를 얻기 위한 수단(11:16)인 폭력은 예를 들어 13장 2절에서와 같이 그 자체로 원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여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9:10. 종종 악인들은 매복하여 그들의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이웃을 유혹합니다(16, 29절)(12:6). 악인의 입은 강포를 숨긴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10:6,11).

그러나 마침내는 악인의 강포가 그들을 쓸어 버리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21:7 둘째, 폭력은 물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은유적으로 작용합니다. 10:12a는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15, 1a에서는 거친 말이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본문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빠질 수 있는 진노의 선동자, 증오, 거친 말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으며, 여러 본문에서는 그 대신 어리석은 특징을 지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종종 불을 피우는 자, 성미가 급한 사람, 15, 18, 패역한 사람, 16:28, 조롱하는 자, 22:10, 29:18, 험담하는 자, 16:28, 26:20, 21절, 탐욕스럽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진노에 빠지면 성격이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20:3). 그러므로 다툼의 시작은 물 흘림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라 17:14.

불과 물, 둘 다 통제력을 잃기 쉬운 것입니다. 26:17의 또 다른 이미지에서는 지나가는 개 귀를 잡는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다른 구절을 언급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툼을 피합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10:12.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15:1.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다툼을 진정시키는 자, 15:18.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28장 25절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부를 얻을 것입니다. 자,

이미 불화의 선동자 중에 비방이 확인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4:28, 29. 까닭 없이 네 이웃에 대하여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그들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비록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 효과적인 무기처럼 보이지만 25:18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참새가 날아다니고 제비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부당한 저주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26:2). 사실, 중상모략하는 혀는 북풍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반드시 분노를 낳습니다(25:23). 결국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움을 숨기는 자요, 비방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10:18.

넷째, 비방과 보복의 어리석음이 연결된다. 야고보서 4:11, 12에 따르면, 중상하는 사람은 입법자이자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부 관료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나 보복을 위임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정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 신명기 3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잠언 20:22.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 원수가 주리거든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것임이니라 그리하면 주께서 상 주시리라.” 잠언 25장에서. 그들의 수치심이 회개로 이어지든 아니든, 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자선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겪은 잘못에 직면하여 진노는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취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노, 심지어 절망적인 진노조차도 공의의 성격을 오해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자비와 개혁의 기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노에 대한 잠언의 가장 광범위한 반대는 급한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즉시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무시한다, 12:16. 성급한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을 베푼다, 12:18.

노하기를 급히 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14:17.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성미가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4:29. 다양한 각도에서 잠언은 급한 성격을 불미스러운 것과 연관시킵니다.

어리석음, 상처 입히기, 계략, 반복적인 범죄 등. 잠언이 성경신학에 대한 총체적인 기여를 더욱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약성경과의 관련 연관성을 매우 자주 추적할 시간과 공간이 없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야고보서, 특히 1장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3장 5절과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쟁과 분냄과 다툼과 분열과 육체의 일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반대하는 당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진노는 부절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만에서도 비롯됩니다. 그것은 자선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 손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내하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실을 두려워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구약성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후렴구). 우리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잠언은 그것을 장려합니다.

잠언에서 불화라고 부르는 많은 것에는 또 다른 악덕, 시기, 왜곡된 정의감, 단순히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때문에 다른 정당에 등을 돌리는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거나 자신에게 속할 수 있거나 속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질투는 단순히 욕망의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시기심은 슬프게도 거의 처음부터 성경 이야기에 필수적입니다. 오직 한 분의 신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과 같이 나무의 열매를 원하고 동산에서 직접 신의 주권자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으로 이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승인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이나 질투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자선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측면을 모두 침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잠언은 다른 악덕에 비해 시기심에 덜 명시적으로 직면합니다. 잠언은 행동뿐만 아니라 성격, 즉 잠언이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문학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미지는 내부 성향 자체보다는 주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관행과 연설과 같은 공개적 표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잠언의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잠언이 일반적으로 주는 조언과 직접적으로 맞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23장과 24장에서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며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게다가 잠언에서도 시기의 많은 원인이 정욕, 폭식, 탐욕의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쾌락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빈곤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사회 질서에 혼란과 분쟁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잠언은 부자의 시기를 문화생활의 불행한 현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 20절과 21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느니라.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잠언은 또한 이웃에 대한 시기심을 반영하고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적인 태도에 직면합니다.

남을 멸시하는 자는 지각이 없으나 총명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1:12. 악인의 영혼은 악을 원하느니라 그들의 이웃은 그들의 눈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21:10.

너희 원수들이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들이 넘어질 때에 너희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진노하사 그들에게서 진노를 그치시리라(24:17, 18). 시기의 힘은 27장과 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노가 맹렬하고 분노가 홍수와 같으나, 투기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4장 30절에는 육신의 생명은 건강한 마음이요, 질투는 뼈의 썩음이라고 트렘퍼 롱맨이 번역한 대로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이나 결혼한 사람이 파트너의 사랑과 충실함에 대해 적절한 열심을 보일 때 언약 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표면으로 드러날 때까지 사람의 내면을 잠식하는 썩은 시기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교만의 가장 큰 악덕은 타락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영광으로 부풀려졌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위축됐든 왜곡된 자기 인식은 정욕, 폭식, 탐욕처럼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어지럽히고, 분노와 시기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지럽힙니다..

위축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나태의 왜곡이 때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교만은 숨겨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대조일 뿐입니다. 교만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개념적으로 구별됩니다.

교만은 자신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Vainglory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다룹니다. 우수성은 문화가 인정하기에 적합한 합법적인 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문화와 아마도 다른 많은 문화에서 사람들은 탁월성 자체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관심이 있으며, 이러한 근시는 허영심과 자만심을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진정성과 자기 표현에 대한 현대인의 욕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비겁한 욕구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소위 소셜 미디어, 또는 실제로는 반사회적 미디어는 현재 허영과 자만 사이의 중복에 대해 많은 특별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헛된 영광은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을 구하는 것, 무가치한 근원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는 자신을 성취의 원인으로 여기는 것, 비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더라도 자신이 이러한 성취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자신에게 실제로 부족한 자질을 자랑하는 것,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은 특히 Schimmel에서 나왔습니다.

겸손에 대한 성경적 지혜의 독특한 찬양은 인간의 적절한 존엄성, 자유, 개성에 반대되지 않습니다. 잠언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전통적 지도가 창조된 세상과 인간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자아를 두고,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서 독특함이 나타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율적이다.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관계적 맥락에 의해 얼마나 많이 형성되는지를 고려하면,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선택은 인간의 개성과 전통적인 공동체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사회 구성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겸손은 벌레처럼 굴복하고 개인의 존엄성이나 독특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특정한 약점뿐만 아니라 특정한 장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관련하여. 로마서 12:3. 잠언이 교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25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으시고 과부의 지계를 지켜 주신다.

16:5 교만한 자는 모두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그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십시오. 고전 16:18, 19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전리품을 교만한 자들과 나누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나으니라. 반대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부와 영광과 생명이니라(22:4). 교만의 위험은 26:12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눈에 지혜로운 사람을 보십니까? 그들보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희망이 더 있느니라.

어리석음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명예를 구하는 모든 형태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교만은 실제로 불명예를 가져오고 겸손은 그 반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겸손한 사람의 지혜를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26.1 여름에 눈이 오듯, 추수 때에 비가 내리는 것 같으니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22:1 큰 부보다 좋은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만을 위한 명예를 교만하게 추구하는 것과 신성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과 성약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은 종종 허영에 대한 경멸이 훨씬 더 큰 허영의 원천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허영에 대한 경멸이 자랑스러운 것일 때 그것은 경멸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예를 받으면 정말 겸손해진다고 말하는 운동선수들의 이상한 새 진드기처럼 우리도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 말투는 우리 문화에 존재하는 일종의 거짓 겸손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잠언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인격의 시험임을 지적합니다. 27:21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므로 칭찬을 받음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다루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 허로 아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28:23, 건강한 언약 공동체에서는 경건한
 행동 뒤에 사회적 인정이 뒤따를 수 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예속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충분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겉모습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자인 척하면서도 가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척 하지만 큰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부와
 관련하여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그는 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배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 빈 거지일 수 있는 방식을 부풀어 오른 가죽
 부대의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혜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12:15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을 듣습니다. 13:10 무익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조언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요컨대, 교만의 반대인 성경적 겸손은 정욕과 기타 주요 악덕의 반대인 자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두려움을 통해 덕성 있는 성품을 육성합니다.
 그러한 겸손은 개성을 파괴하거나 모든 형태의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도덕적인 평판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입니다.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것이 건강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거나 신성한 은혜를 떠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섬길 때 치명적인 교만이 관련됩니다. 잠언 교육학에서 우리가
 신의 집과 인간의 집 사이에서 전개해 온 비유는 교만의 한계를 강화합니다.

세상의 친구와 부모의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반대로 교만은 궁극적인 타락에 앞서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에는 갱단에 맞서는 용기 있는 개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신앙과는 별개로 신중함이나 기타 주요 미덕의 예비 요소를 개발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겸손한 도덕적 진보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이 처음에 덕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은 영적 필요를 향해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참되고 총체적이며, 통합된 지혜.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대한 강의에서 Dr. Daniel J. Treier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세션, 잠언 10-29장, 자본 악덕입니다.